



인도 : 임창세 목사

※ 표는 일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27장

2·3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임재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교독문	40. 시편 96편
참회기도	다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265장
기도	1부: 최광순 권사

성경봉독	마태복음 12장 22-32(신약19)	인도자
찬양	세상을 사는 지혜	영상
말씀	주만바라볼자라(38) 성령과 바알세불	임창세 목사

8월 봉사위원

	8월 8일	8월 15일	8월 22일	8월 29일
예배기도	1부 최광순	박영애	남영옥	유인숙
	2부 최진수		최운교	정준진
	3부 비대면 영상예배			
수요	정귀자	이경미	이복률	정지영
현금위원	1부 : 남효정	2부 : 안충우	박정아	
안내위원				

결단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다같이
현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송영	하나님의 그늘 아래	다같이
※축도		임창세 목사

수요예배	금요실야기도회	새벽기도회
저녁 7시 30분	저녁 9시	오전 5시 30분

말씀 : 천광우 목사 말씀 : 임창세 목사

【마태복음 12장 22-32절】

“그 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²³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²⁴ 바리새인들은 들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²⁵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 ³¹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랑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³²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 예배 안내 >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1:30
교 육 부 서	유치부	새성전2층
	어린이부	교육관1층
	청소년부	교육관2층
	새벽예배	새성전2층
	수요예배	본당
금요실야기도회		본당
금요실야기도회		본당

<2021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진(필리핀)

김영생(인도네시아), 흥룡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창구), 말씀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지구촌구호개발연대

남신도회 선교 : 은행골 우리집(김광수)

목장	목자	모인곳	인원	현금	전도	목장	목자	모인곳	인원	현금	전도
1	곽삼화					13	김영주				
2	강호성					14	박은경				
3	최광순					15	안순조				
4	임완민					16	김종순				
5	윤종찬					17	정신자				
6	박심원					18	주경숙				
7	이용준					19	최운교				
8	신연호					20	전옥자				
9	최진수					21	이미숙				
10	김효영					22	유인숙				
11	이희					23	이경순				
12	양웅모					24	정순진				
						25	주리애				

삶의 육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십일조

임창세·주리애 강윤자 김정례 남효정 박기자 박상민·김영옥 박심원·윤관순 박영애 박해영·신동희 석장환 신새벽 안순조 임완민·곽삼화 임완순 장명자 정영숙 정재현 정종언 정진영 천광우 최진수

◆ 감사헌금

임창세·주리애 강인식 김성혜 김수매 박경희 박상민·김영옥 박순옥 박심원·윤관순 박재락 박정아 백영준 이말자 이미숙 이순자 임지은 정영숙 최영란

◆ 선교헌금

임완민 한춘우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기관헌금	목장헌금	감독헌금	선교헌금
86,000	4,300,000	890,000			150,000	

* 온라인헌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 2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현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

32.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앙고백

찬 송 :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302장)
 기 도 : 맡은이
 말 씀 : 요나 4장 1~11절

말씀묵상

선지자 요나는 악한 도시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도록 명령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니느웨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만, 그는 결국 니느웨로 오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가도록 이끄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1-2).

요나는 니느웨성을 들며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멸망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으며 회개했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선 것을 보신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에게 자비로 응답하십니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용서를 얻습니다. 회개로 뜻을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도 돌이키시며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2.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입니다(2-4).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시기를 원했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진노할 기회보다 용서 할 기회를 더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싸 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부끄러움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3. 하나님은 이방인도 아끼시는 분입니다(5-11).

초막 위로 무성히 자란 박 넝쿨은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벌레가 모두 깊어먹자 그늘도 사라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놓다가 죽은 박 넝쿨을 아까워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십이만 명이나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와 달리 니느웨의 이방인들까지 아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맺는말.

우리를 위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적용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용기를 얻어 복음을 전합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은 남신도회 선교(은행골 우리집)를 후원합니다.

2. 예배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었지만 교회는 좌석수의 10%까지 예배 인원이 허용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5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는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 주일예배(15일부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주일 2부예배는 되도록 백신 2회 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목장별 전화심방

매주 화요일(1지역)과 목요일(2지역)에 목장별로 전화심방이 있습니다.

4. 교육부 여름행사

오늘 청소년부 여름수련회를 끝으로, 모든 교육부 여름행사를 은혜 중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교사들과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 예배위원회

대면예배가 시작되어 주보 2면 하단에 예배위원회를 안내해 드립니다.
 확인하시고 담당자께서는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교역자 휴가

정진영 목사 : 8/9(월) ~ 8/18(수)까지

7.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교우소식

현물 - 강단 화분 : 박상민·김영옥권사 가정

둔전교회를 섬기는 이들

창립 1904년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교육전도사 : 신새벽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지휘자 : 이영준

반주자 : 임귀희 임미리 임정임
 김성혜 이하림

제117권 제 32호

2021. 8. 8

The ni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고후 6:1-2)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DOON JEON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 031)751-7230

www.doonjeon.kr